

도, 내달 열리는 '김대중 평화회의' 준비 박차

NEWS

2025년 8월 6일 수요일

보고회서 프로그램 구성 등 분야별 주요 추진현황 점검 김영록 지사 "시대정신 구현의 장 되도록 철저히 준비"

전남도가 오는 9월 목포에서 열리는 '2025 김대중 평화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전남도는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5 김대중 평화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프로그램 구성과 홍보 전략 등 분야별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대중 평화회의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김대중 정신에 입각한 평화적 국제 관계를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오는 9월 24일부터 3일간 목포에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상상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백학순 김대중평화센터 이사를 비롯한 조직위원과 집행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전체 프로그램 구성과 세부 운영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서 학술회의 주제 및 세션 구성, 국내외 주요 연사 섭외 현황 및 관리,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문화행사 및 출연진 구성, 행사장 공간 구성, 안전관리 대책 등 분야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식 누리집 개설, KTX 영상 광고 등 대중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단체, 대학교·향우회 등과 연계해 전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국내외 참가자 대상 숙박·교통 등 관리에 큰 힘을 다하

고, '김대중 평화콘서트' 등 대규모 야외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도 수립 중이다.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남은 준비 기간 동안 분야별 추진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행사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올해 학술회의에선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세계적 석학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권위자인 김경호 카이스트 교수가 특별 강연을 한다.

문화행사로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예술로 풀어낸 '김대중 평화콘서트',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를 되짚으며 2030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DJ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토크콘서트' 등이 마련됐다.

이 외에도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평화라운드 테이블과 4개 전문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 세계가 찬사하는 케



김영록 도지사가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5 김대중 평화회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이(K)-민주주의는 김대중 정신이 뿌리내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증명한다"

회가 곧 밥이다"는 철학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 추구한 평화를 통한 공동 번영과 일맥상통한다. 김대중 평화회의가 이러한 시

대정신을 구현하는 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침수 반복 신안교...광주시, 근본적 치수 대책 추진

홍수방어벽 일부 철거...배수구멍 50곳 추가 설치 관로 분리·교각 철거·하천 직선화 등 1000억 소요

광주시가 북구 신안교 일대에 반복되는 침수 피해 원인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신안교 주변의 지형적·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장기 대책 수립에 나서고, 당장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단기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신안교 일대는 지난달 17일 80대 신안동 주민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주택과 상가 70여채가 물에 잠기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3일 집중호우에도 2주 만에 또다시 수해를 겪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주변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하천이 합류되는 구간의 구조적 요인 탓에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신안교 일대는 용봉천 24×24m, 서방천 12×12m 박스형 배수관로가 각각 합류하는데, 용봉천의 수압이 서방천의 배수관을 압도해 서방천에서 흘러 오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면

서 주변 일대가 침수된다는 것이다.

침수 피해는 신안교는 물론 전남대 정문, 북구청, 말바우시장까지 서방천 복개도로를 따라 확대되기도 했다.

여기에 광주전으로 합류하는 서방천 물길 상 신안교교의 6개 교각이 유속을 방해하며 수위 상승을 유도하고 있고, 신안교 하부 곡선 구간이 유실과 침수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안교 일대가 저지대라는 점도 침수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운암동, 용봉동 일대의 고지대에서 흘러오는 물길이 신안동 일대로 집중되는 지형이다.

반면 주민들은 서방천 일부 구간에 설치된 투명 홍수 방어벽과 신안교에 설치된 밀폐형 차단막이 주변 주택·상점가를 물그릇처럼 만들어 빗물을 모은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같은 원인 분석을 토대로 단기, 중장기로 나눠 수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가장 근본 원인인 구조적 요인 해소

를 위해 용봉천·서방천 관로 분리(400억원), 신안철교 교각 축소(300억원), 신안교 인근 하천 직선화(300억원) 등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정부 지원 없이는 예산을 수립하기 어려워 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우선 기다리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2020년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추진 중인 축구장 10개(약 7000㎡ 규모)에 1m 높이의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은 총 7만 규모의 저류조 3곳을 2028년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문흥동, 북구청 인근, 신안교 하부 등에 구축해 우선 시 수량을 감소시킨다는 복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장은 수해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 전통시장 8곳서 9일까지 환급행사

전남도는 오는 9일까지 도내 8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전남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다.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에만 실시되던 환급 혜택을 여름철까지 확대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시장은 목포 중앙시장·동부·청호시장, 광양 중앙시장, 정남진장흥토요시

장, 강진읍시장, 해남매일시장, 무안전통시장이며, 본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본인확인 후 구매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은누리 상품권을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 이달부터 '손자녀 돌보미' 2배로 확대

3자녀→2자녀 이상...월 200→400세대 지원

광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선보인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해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

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책을 거쳐 지원 대상과 돌봄 제공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기존에는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 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월 지원세대를 기존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두 배

확대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 키움' 플랫폼 또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 확대는 가족 내 돌봄자에게도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돌봄정책의 시작"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모두가 행복할 광주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19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2025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바라는 기업을 오는 1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조기 발굴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자격 부여 외에도 제품 홍보와 판로 지원, 기업 경영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기간은 19일까지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대면

심사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도·시군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군 대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061-276-1333-5)에 확인할 수 있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곡성 모둘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 시공

휴인주식회사 HUIN Co.,Ltd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입니다.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www.huin.kr